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려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1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1_ 기계류 부속품 수입 완화

인쇄기 부속품류 등을 포함한 30개 항목 기계류 부속품이 사전 승인을 받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1964년 11월2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공부의 4/4분기 발표 내용을 1면 머릿기사로 게재했다. 시보는 각 관련 업체들에게 지정 품목에 해당되는 기종이나 부품 등에 대해 조속히 신청, 접수하도록 주문했으며 수입 시 정부 시책의 인식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관련 단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특히 시보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입 완화 정책에 대해 국가 경쟁력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인쇄 기술인의 고급화 등을 열거하며 국내 인쇄업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환율 변동 폭에 의한 시세 차액으로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타 제조업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_ 롤러식 연마기 도입

롤러식 연마기가 국내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1967년 11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당시 국내에서 인쇄용 고무 롤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광성고무공업사가 서독제 롤러식 연마기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보는 롤러 방식에 대해 인쇄물의 생산과 질적 향상을 이어나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력이라고 소개하며 작업자의 업무 환경 및 수주물의 납기 단축에 대해 지대한 공헌을 이룰 것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최고의 연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서독의 롤러식 연마기를 도입한 광성고무공업사는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이미지 제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시보는 특히 광성고무공업사에 대해 작업장 환경 및 자체 연구개발에 대한 재원을 아끼지 않는 업체라고 호평했다.

3_ 대기업 독점 난무

'브로슈어 등 각종 인쇄물이 대기업에 편중돼 중소기업 인쇄업자들의 판로에 비상이 생겼다'. 인쇄문화시보(1970년 11월1일자) 1면 머릿기사에 게재된 이 기사는 당시 국정감사 시 자료로 제출했던 내용이 그 바탕이 됐다. 시보는 인쇄 등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호경쟁 부분을 조사한 결과 절반 수치가 가까운 43%가 대기업에게 물량이 치중돼 있다고 판단,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제본기 등 인쇄 시설을 마구잡이로 도입하고 있어 중소기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음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대기업의 독점 현상이 시장 전체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합원사들의 단체수익계약에

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시정을 주문했다. 시보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빈비례하고 있는 정부의 탁상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편중된 현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_ 섬유인쇄기술 국내 진출

일본의 섬유 인쇄 전문업체인 명문당주와의 기술 제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73년 11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1974년 1월1일자를 기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섬유인쇄 부문을 다루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시보는 당시 삼성인쇄공업사대표 김근화가 정부로부터 기술도입 인가를 정식으로 얻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인쇄업이 섬유 인쇄까지 확장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삼성인쇄는 기술정보, 원고 및 디자인에 대한 무상 지원을 일본 명문당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며 관광용 제품 등 각 분야에 걸쳐 세계 각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섬유원색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 시보는 또 외화 가득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하며 인쇄업역의 확장으로 수많은 인쇄인들의 진로 설정에 한 걸음 여유로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제휴 협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본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하며 원천 제공자인 명문당주와의 꼼꼼한 계약 조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_ 고성능 자동현상기

‘드디어 제판계의 꿈이 실현되다’

1969년 11월1일자 인쇄문화 시보에는 당시 현상기의 기술력을 가능할 수 있는 광고가 하나 게재됐다. 이 현상기(LD-240-D)는 시트 및 롤필름의 현상에서 건조까지 완전 자동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분당 78매까지 작업이 가능했다. 가장 큰 특징은 필름이나 약품의 제조회사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작업 물량을 소화할 수 있었으며 조작성 간편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했다는 것. 일본의 스크린 제조 회사인 잉크화학공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납품받아 국내에 공급하고 있었던 삼화양행은 품질향상 및 저비용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며 품질 향상과 균일한 안정성이 강조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광명인쇄공사에서 도입해 가동 중이었던 이 현상기는 작업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당시 인쇄 업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6_ 8분만에 컬러 인쇄물 출력

일본에서 8분만에 컬러 인쇄물 출력이 가능한 컬러스타트 카메라가 개발, 출시됐다. 1977년 11월1일자 인쇄문화시보에 보도된 이 기종은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등에서 8분 이내에 컬러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었으며 분체와 드라이아 유닛에서 일괄적인 작업이 가능했다. 또 하나의 버튼으로 확대, 축소, 변형 등 작업공정이 자동으로 처리됐다.

시보는 이즈미아사가 개발한 이 복사기에 대해 “사진 제판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획기적인 제품이다”라는 국내 한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평했다. 당시 국내 인쇄제판 업체들에게 크나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이 기종에 대해 시보는 “국내 사진 관련 업체들이 선진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한 좋은 기회다”라며 “꾸준한 연구개발 및 연구 기회를 늘려 기술자들로 하여금 선진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7_ 인쇄전용컴퓨터 등장

인쇄 공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컴퓨터가 등장했다.

1979년 11월16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모도야(주)에서 개발한 인쇄업계 전용 비즈니스 컴퓨터인 ‘데콤60M시스템’에 대해 맞춤형 기종이라고 소개했다. 이 기종은 공정별로 표준 작업 점검이 실시간 가능하고 각 업체마다 다른 단가를 표준에 맞춰 원가 계산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또 가동률 및 일정 체크 등 일반 인쇄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월별 관리 자료는 물론 거래선 별로 수주 넘버 분류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시보는 특히 입·출력 장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석에서 출력돼 수주 업체들이 재빠른 대응책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발주자와 발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라는 한 관계

자의 말을 인용해 신개념의 인쇄 운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당시 이 시스템에는 ROM(8-24K/B) 등의 중앙처리 장치가 구축돼 있었다.

8_ 인쇄업계 S/W 붐 활발

전자사전 관련 S/W 신제품들이 잇달아 출시됐다. 1994년 11월18일자 인쇄신문에 보도된 이 기사는 사전류 인쇄물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전자사전의 기능을 더욱 다양화하고 저비용과 소규모를 표방한 신제품들이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인쇄업계의 대응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 기사에서 신문은 서적·사전류가 매년 300만부씩 인쇄돼 왔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사전의 성장으로 매년 10%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상당수 서적 물량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반 인쇄물 사전의 한계인 관리와 저장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자사전 S/W가 계속 출시 중이다”라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신문은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 인쇄업계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pc 분야도 예전과 다르게 첨단기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경인쇄업을 운영하는 인쇄업자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홍일 기자)